

직업군인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이 자 영** · 김 현 아***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의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인지(고정관념), 정서(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행동(사회적 거리감)으로 구분하고, 심리적 변인(수용성, 권위주의, 사회정체성, 통일인식)이 북한이탈주민의 편견에 주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군인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직업군인의 수용성과 통일인식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지적 편견인 고정관념, 정서적 편견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그리고 행동적 편견인 사회적 거리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직업군인의 사회정체성은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거리감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둘째, 직업군인의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간의 관계에서 수용성은 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에서 모두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군인의 편견, 수용성, 권위주의, 사회정체성, 통일인식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A8019363).

**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교수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I. 서론

현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그들이 원할 시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군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일반 병사, 부사관, 장교 등으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실제 그들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병역면제 처분이 이뤄짐으로써 사실상 그들은 군복무에서 제한되어 왔다.¹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4대 의무 중 하나인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군복무를 원하거나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을 차별한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²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군복무 추진과 관련된 연구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³

특히 2013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중 제18조(특별임용)에서,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의 직위나 경력에 대한 인정은 일반 사업주에게 권장하고 있었으나, 이는 군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군인으로서의 특별임용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의 다양한 국가 및 사업장에서 북한출신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⁴ 군은 이를 제도로 도입하기 이전에 북한이탈주민이 군복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는 향후 통일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편입된 인민군 출신자 또는 그 외의 북한이탈주민이 군 입대를 할 경우, 그들과 남한 출신 군인 간의 적응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것이며, 군의 통합에 대한 의구심, 저항, 불만 등이 남북한출신 장병 양쪽에서 일어날 수 있다. 즉, 가장 적대적이

¹ 오주영·정해빈,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 『공익과 인권』, 제13권 통권 (2013), pp. 288~289.

² 강동완,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징집 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1), p. 242.

³ 위의 글, p. 242~285; 오주영, 정해빈,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 p. 287~324; 최선에, “다문화 군대를 대비한 민과 군의 준비방향에 관한 제언,” 『한국군사학회지』, 제3권 1호 (2010), pp. 93~113.

⁴ 손기웅, “통일한국의 군 통합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6권 1호 (1997), pp. 294~295.

있던 집단,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교육되고 훈련되었던 남북한 군인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군 조직 내 갈등을 예상해볼 수 있다.⁵ 이러한 갈등의 원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들 수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고 치우친 생각, 정서 그리고 행동 등을 포함하는 편견은 흔히 흑인,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소수집단을 대할 때 흔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4명 중 1명(25.3%)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차별 이유는 말투, 생활방식,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된 이유였다.⁶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한 2000년대 이후 김혜숙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연구들⁷을 살펴보면, 이전 연구들⁸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연민의 감정이나 호감도는 높지만, 결혼, 친구 등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결혼가정자녀나 이주노동자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⁹ 편견은 군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을 갖는 이유로 남한 주민 500명 중 38.8%가 북한주민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24.2%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¹⁰ 따라서 북한을 적이라고 늘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군인의 경우, 일반 집단에 비해 북한에 대해 더욱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또한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구성원의 단결이 중요한 집단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심해져서 군대 내 내부갈등이 증가한다면, 군의 전투력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군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¹¹ 따라서 군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북한이탈주민이 군복무를 할 경우 또는 통일을

⁵ 위의 글, pp. 294~295.

⁶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04_0010204920 & cID=10201&pID=10200> (검색일: 2016.4.25).

⁷ 김혜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4호 (2007), pp. 96~97;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2호 (2011), p. 69.

⁸ 정기선,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 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2권, 여름호 (1998), p. 427.

⁹ 양계민·정진경,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¹⁰ 신미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상호인식-한국사회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5권 2호 (2009), p. 128.

¹¹ 최선애, “다문화 군대를 대비한 민과 군의 준비방향에 관한 제언,” p. 95.

대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편견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권위주의적 성격,¹² 현실적 이해갈등 정도,¹³ 민족정체성,¹⁴ 주관적 안녕감,¹⁵ 보편주의가치¹⁶ 등 다양한 요인들이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대부분 다문화집단이나 장애인집단과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결과일 뿐 아니라 설문 응답자 또한 일반인으로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특성을 고려하여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정체성, 권위주의적 성격, 통일에 대한 인식, 수용성 등이 군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하고, 계급에 따른 명령체계가 확실한 조직이기 때문에,¹⁷ 사회정체성이나 권위주의적 성격, 수용성 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군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 통일인식을 고취시킬 것으로 사료되거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군인 중에서도 직업군인인 부사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부사관은 첨단 전투장비가 개발되고, 저출산 사회가 되면서 군의 핵심인력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교와 병사와의 관계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병사 또는 부사관으로 군인이 될 경우 그들의 적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인

¹² 서영석·이정림·차주환, “성역할 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1호 (2006), p. 177; Altemeyer, B.,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San Diego: Academic Press, 1998), p. 53.

¹³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2호 (2009), p. 71; Coenders, M., Lunners, M., & Scheepers, P., “Majo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report for the European Monitoring Center on Racism and Xenophobia,” (2003), <http://eumc.int>.

¹⁴ 김혜숙 외,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p. 71;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 72; De Figueiredo, R. J. P., & Elkins, Z., “Are patriots bigots? An inquiry into the vices of in-group prid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7, No 1 (2003), p. 178.

¹⁵ 양계민,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과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4권 1호 (2010), p. 122.

¹⁶ 김혜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p. 99.

¹⁷ 최현주·이자영, “직업군인(부사관)의 소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제13권 6호 (2012), p. 2778.

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군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군인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개입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군복무에 대해 아직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지 못한 군의 준비를 촉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군복무를 할 경우 군대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남한출신 군인의 적응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인들의 단결과 화합을 증가시킴으로써 군의 조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군의 전투력 향상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직업군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수용성, 권위주의, 사회정체성, 통일인식)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직업군인의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인지, 정서, 행동)간의 관계에서 수용성, 사회정체성, 통일인식은 매개변인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북한이탈주민과 편견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의미한다. 즉 객관적인 정보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사회적 인종적 범주에 기초해서 타인이나 상황, 집단 등에 대해 가지게 되는 태도, 의견을 말한다.¹⁸ Allport에 의한 편견의 고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개인이 한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갖게 되는 좋고, 싫음의 태도로 인지적 차원의 고정관념과 부정적 감정과 차별적 행동을 포함 한다.¹⁹ 편견의 구성요소는 태도의 3요소인 인지, 정서, 행동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즉, 인지적 측면을 고정관념으로, 감정의 측면은 ‘좋다’, ‘혐오 한다’ 와 같은 편견의 근원으로, 편견의 행동적 요소는 차별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²⁰ Campbell에

¹⁸ Sears, D. O., Freedman, L., & Peplau, L. A., “Social psychology (5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5), pp. 12~13.

¹⁹ 임나영, “북한이탈주민 학생에 대한 초등교사의 태도 분석-사회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 11.

의하면, 행동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비해 태도는 훨씬 추상적인 수준에서 측정하는 오류로 인해 태도와 행동의 괴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태도가 강한 사람의 경우는 태도에 부응하는 행동이 나타나지만 태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수 있다.²¹ 따라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고정관념뿐 아니라 이들의 정서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²²

한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개인의 생각, 행동 등을 보고 개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의 부정적 속성에 근거해서 개인을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개인에게 적대감과 갈등을 야기하며, 이는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성한다.²³ 편견을 당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간적 모욕과 무시를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회피나 배제, 그리고 직장 채용에서도 불이익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존감과 정체성이 낮아진다.²⁴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편견 및 차별대우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²⁵ 규율 및 동료관계로 인한 조직적응의 어려움²⁶을 겪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시기가 장기화되어 질수록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²⁷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²⁸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연구는 사회적 거리감을 수용으로 혼용해서 보거나,²⁹ 일반인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

²⁰ 한덕웅·성한기·강해자·이경성·최훈석·박군석·김금미·장은영,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5), p. 323.

²¹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13, 3판 8쇄), pp. 228~229.

²²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 71.

²³ 김혜은, 『다문화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2012), p. 13; 위의 책, pp. 12~13.

²⁴ Major, B., & O'Brien, L. T.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6, (2005) p. 394; Steele, Spencer & Aronson, (2002) p. 393.

²⁵ 조정아·정진경,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p. 38.

²⁶ 박은숙,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 81; 조정아·정진경,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p. 38.

²⁷ 양계민·정진경,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권 특집호 (2005), pp. 107~109.

²⁸ 박은숙,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이직의도를 중심으로,” p. 81.

²⁹ 양계민·정진경,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pp. 107~109.

성, 다문화가정 자녀,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비교³⁰함으로써 집단 간 갈등이 예상되는 특정 집단의 편견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연구³¹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는 방법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군인의 편견적 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해볼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먼저 북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이고, 정직하고, 희생적이고, 호감이 간다는 등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울하고, 공격적이고, 비관적이라고 하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그리고 이러한 북한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수입이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나 친척 중에 실향민이 있다고 한 사람보다 없다고 한 사람들이 북한 및 북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³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역시 이와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양가감정이 역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결혼할 의사를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우리나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식이 적은 학생일수록 더 부정적이었으며, 심지어 초등학교생들은 외국인노동자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³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그들의 부적응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³⁵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개입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³⁰ 김혜숙 외,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p. 62;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 67.

³¹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 71.

³² 차재호, “남북한 문화통합의 심리학적 고찰,” 『북한문화연구 1』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 pp. 27~30.

³³ 전우영, 조은경,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1호 (2000), pp. 167~184.

³⁴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p. 70~71.

³⁵ 김혜은, 『다문화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p. 13.

2.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그동안 편견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편견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편견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권위적 태도 또한 편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자에게는 순종적이지만, 자신이 권력을 가졌을 때에는 소수 집단을 배척하고, 지배하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으며, 그 결과 소수집단에 편견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³⁶ 그 외에 자아존중감, 사회적 안녕감,³⁷ 대인관계³⁸ 그리고 개인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동기³⁹ 등이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보고되었다.

2010년 6월 국방부가 육·해·공군장병 500명 대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의견에 ‘우리사회의 다양한 인종·민족에 대하여 바람직하다’라는 조사항목에 장병 75.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다문화수용에 대해서는 69.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우리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대해 장병다수의 마음과 태도가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방부는 다문화장병의 범주에 북한이탈주민도 포함해 놓고 있어서, 군대생활은 다문화사회 학습의 기회가 되고 전역 후에는 다문화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⁴⁰ 하지만 지금까지 군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과 편견에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서비스 뿐 아니라 남한사회 전체의 수용적인 자세가 중요하다.⁴¹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편견과 나쁜 태도로 상대를 대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수용하고 생활화하는 다문화주의는 편견과 차별감소에 효과적이다.⁴² 최근의 긴장된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실험 문제 등은 군인들에게 현실적인 위협 상황이고 이들의 수용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³⁶ Elms, A. C., & Milgram, 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obedience and defiance toward authoritative command,"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ersonality*, Vol. 2 (1966), p. 285.

³⁷ Crocker, J., & Major, B.,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Vol. 96 (1989), p. 615.

³⁸ Kaiser, C. R., & Miller, C. T., "Stop complaining! The social costs of making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7 (2001), p. 258.

³⁹ 김혜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pp. 96~97.

⁴⁰ 이정호, "군 인적자원 구성 다문화대비 정신교육 방향연구-다문화인식과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⁴¹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 통일교육원 교육자료 (2003).

⁴²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pp. 527~528.

편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인의 편견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며⁴³ 특히 편견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⁴⁴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해 수용성과 편견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겠지만 수용성이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학생 및 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편견적 태도와 행동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체성을 들 수 있다. 자기 정체성 중 사회정체성은 개인 정체성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회정체성 이론에서는 집단 간 차별과 적대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집단정체감이 높아 집단에 대한 동일시가 높은 사람들이 집단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으면 외집단, 소수집단에 편견이 높다고 보고되었다.⁴⁵ 같은 맥락에서 단일민족의식이 높을수록 다른 민족을 배제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소수집단의 구성원인 외국인과 한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종족적 배제주의와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⁷ 그러나 같은 직장 내 친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거나 같은 작업장 내에 있을 경우, 더 친밀한 접촉을 할 때는 낮은 종족적 배제주의와 상관성이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가 정체성을 근거 이론을 통해 질적 분석 한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고향이 북한인 한국사람’, ‘북한출신 한국 국적자’, ‘탈북한(脫北韓) 한국 국적자’, ‘탈 국가적 개인주의자’ 로

⁴³ 김금미·안상수, “남녀대학생의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 19권 3호 (2014), pp. 315~338; 정석원,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홍유진,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⁴⁴ 정명희·이주희,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연구』, 제7권 2호 (2014), pp. 81~105; 박영주·이주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제24권 통권 24호 (2013), pp. 285~310.

⁴⁵ Branscombe, N. R., Schmitt, M. T., & Harvey, R. D., “Perceiving pervasive discrimination among African-Americans: Implications for group identificatio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1999), p. 141.

⁴⁶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pp. 70~71.

⁴⁷ 김이선·황정미·이진영,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1), 2007), p. 21.

구분 되었다.⁴⁸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남한주민의 종족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특성이 혼합적인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과 충돌하게 되면서 조직 내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통일을 원하는 열망이 높고⁴⁹ 통일이후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도 통일국가의 국가정체성을 구축할 뿐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서,⁵⁰ 통일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 독일이 군 통합에 있어서 독일연방군이 가장 힘쓰는 부분이 군대 내 내적 통합으로 서로 적대적이었던 동서독출신 장병 간에 동질성 회복이었고, 독일이 통일연방군 내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호간 이질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통일연방군에 편입된 동독인민군 간부출신에 대한 교육이었다.⁵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군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편견해소 방안에 대한 모색은 군대 내 인적통합 뿐 아니라 통일 후 군 통합 모델정립을 위해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직업군인 총 243명(32.2%)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총 243명 중 남성은 222명(91.4%)이었으며, 여성은 21명(8.6%)으로 대다수는 남성이었다. 평균 연령은 33세 였으며, 계급은 하사 30명(12.3%), 중사 119명(49.0%), 상사 69명(28.4%), 원사 25명(10.3%)로 나타났다. 자세한 것은 <표 1>에 제시하였다.

⁴⁸ 전우택·유시은·이연우,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근거 이론에 의한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pp. 27~29.

⁴⁹ 정기선,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pp. 427~448.

⁵⁰ 전미영, “통일이후 민족공동체 추진계획,” 『단일·다문화를 넘어선 공동체 모색: 민족공동체와 사회통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11), p. 28.

⁵¹ 손기웅, 『통일독일의 군 통합 사례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 296.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남성	여성
하사	24명(9.9%)	6명(2.5%)
중사	107명(44.0%)	12명(4.9%)
상사	66명(27.2%)	3명(4.3%)
원사	25명(10.3%)	0명(0.0%)
총계	222명(91.4%)	21명(8.6%)

2. 연구도구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 파악한 양계민의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3가지 요소로 측정하였다. 먼저 편견의 인지적 측면은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유능성, 도덕성, 성실성, 공격성, 신뢰성, 공손함)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측정하였으며, 문항 수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값은 .780 이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은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총 9문항(긍정적 정서 3문항, 부정적 정서 3문항, 연민정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Cronbach's α 값은 .746으로 나타났다. 편견의 행동적 측면은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은 북한이탈주민과 어느 정도 거리를 주고 지낼 것인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친밀, 거부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ogardus⁵²가 제작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에 근거해서 김혜숙 등⁵³이 수정하여 개발한 척도로 '북한이탈주민이 가까운 가족과 결혼하는 것을 환영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이 단짝 친구가 될 수 있다'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총 7개 문항으로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83이었다.

⁵² Bogardus, E. S.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1925), p. 307.

⁵³ 김혜숙 외,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p. 62.

나. 수용성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것을 수용성이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황운경⁵⁴이 사용한 수용성 척도를 선정하였다. 이 척도는 보편적 권리 차원, 집합적 위협인지차원, 개방성 차원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22개 문항으로 보편적 권리 차원 5문항, 집합적 위협인지차원 5문항 그리고 개방성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여러 인종,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될 것이다”가 있다.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며, 황운경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0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4였다.

다. 권위주의

Adorno 등⁵⁵이 개발한 척도로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성찰성, 미신과 고정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투사성, 성을 기초 총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35개 문항이며,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권위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통제와 질서가 필요하다”를 들 수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며, 민경환⁵⁶에서의 Cronbach α 값은 .85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0으로 나타났다.

라. 사회정체성

조직의 사회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영석⁵⁷이 개발한 사회정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정체성 척도는 조직과의 동일시 뿐 아니라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⁵⁴ 황운경,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대전광역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 25.

⁵⁵ Adorno, T. W., Frenkel-Brunwic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1950), p 228.

⁵⁶ 민경환,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4권 2호 (1989), pp. 151~152.

⁵⁷ 한영석, “함병기업에서 지위, 사회정체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 95.

연대감을 포함한 척도로 집단자존심, 집단동일시, 집단몰입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13문항으로,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우리 부대의 군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서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외부 사람이 우리 부대의 군인을 비판하면 나에게 대한 모욕처럼 느낀다” 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926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 통일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김병조⁵⁸가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통일인식에 대한 문항은 “남북한 간에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은 많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등을 묻는 내용들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921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직업군인들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군인들의 심리적 변인(수용성, 사회정체성, 통일인식, 권위주의)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사회적 거리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다음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직업군인들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직업군인의 특성을 잘 반영한 권위주의를 독립변인으로 한 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사회적 거리감)을 준거변인으로 한 후 심리적 변인(수용성, 사회정체성, 통일인식)이 독립변인과 준거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사회적 거리감)간의 관계에서 수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⁵⁹

⁵⁸ 김병조,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인식 간의 관계 분석-통일정책에 대한 한 제언,” 『통일과 평화』, 제1권 2호 (2009), p 83.

⁵⁹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1986), p. 1179.

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①권위주의(독립변인)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사회적 거리감)과의 관계, ②권위주의(독립변인)와 수용성(매개변인)간의 관계, ③권위주의(독립변인)와 수용성, 사회정체성, 통일인식(매개변인)을 추가한 후, 준거변인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기초통계

직업군인의 연령, 계급, 심리적 변인(수용성, 사회정체성, 통일인식, 권위주의)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상관을 분석한 후, <표 2>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관련 변인들의 상관분석

변인	1	2	3	4	5	6	7	8
1. 연령								
2. 계급	.81**							
3. 수용성	.15**	.21**						
4. 권위주의	-.02**	.07**	-.38**					
5. 사회정체성	.03**	.09**	.18**	.02**				
6. 통일인식	.22**	.21**	.46**	-.11**	.17**			
7. 고정관념	-.11**	-.09**	-.56**	.26**	-.16**	-.39**		
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05**	-.08**	-.53**	.22**	-.25**	-.40**	.57**	
9. 사회적 거리감	-.05**	-.03**	-.40**	.21**	.08**	-.32**	.36**	.46**
평균(SD)	33.3 (7.15)	2.40 (.85)	3.66 (.46)	2.75 (.43)	4.04 (.68)	3.67 (.97)	2.86 (.40)	2.76 (.49)

** $p < .01$.

2.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연령과 계급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심리적 변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3>에서 보듯이 직업군인들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중 고정관념에 33%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230)=20.298, p<.001$). 고정관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용성($\beta=-.447, p<.001$)과 통일 인식($\beta=-.169,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성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고정관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직업군인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N=243)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고정관념	연령	-.006	.005	-.113	-1.218
	계급	.057	.044	.123	1.311
	수용성	-.387	.058	-.447	-6.691***
	권위주의	.060	.054	.06	1.119
	사회정체성	-.036	.032	-.063	-1.148
	통일인식	-.069	.025	-.169	-2.769**
$R^2=.329, F=20.298^{***}$					

*** $p<.001$, ** $p<.01$.

다음으로 직업군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보듯이 직업군인들의 심리적 변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에 32%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230)=19.221, p<.001$). 심리적 변인 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용성($\beta=-.391, p<.001$)과 사회정체성($\beta=-.151, p<.01$) 그리고 통일 인식($\beta=-.206,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성과 사회정체성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직업군인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에 미치는 영향 (N=243)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연령	.003	.006	.041	.437
	계급	.009	.055	.016	.166
	수용성	-.420	.072	-.391	-5.800***
	권위주의	.058	.067	.052	.868
	사회정체성	-.108	.040	-.151	-2.723**
	통일인식	-.104	.031	-.206	-3.337**

$R^2=.317, F=19.221^{***}$

*** $p < .001$, ** $p < .01$.

마지막으로 직업군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중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직업군인들의 심리적 변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직업군인의 편견 중 사회적 거리감에 20%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230)=10.666, p < .001$). 심리적 변인 중 사회적 거리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용성($\beta = -.331, p < .001$)과 사회정체성($\beta = .160, p < .01$), 통일 인식($\beta = -.199, p <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성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사회정체성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직업군인의 심리적 변인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N=243)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사회적 거리감	연령	-.008	.015	-.051	-.507
	계급	.141	.131	.111	1.081
	수용성	-.781	.172	-.331	-4.590***
	권위주의	.122	.160	.050	1.005
	사회정체성	.252	.095	.160	2.664**
	통일인식	-.220	.074	-.199	-2.970**

$R^2=.197, F=10.666^{***}$

*** $p < .001$, ** $p < .01$.

3.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간의 관계에서 수용성, 사회정체성, 통일인식의 매개효과

직업군인의 대표적 특성인 권위주의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⁶⁰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변인들 간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분석 단계 1), 둘째, 독립변인이 준거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분석 단계 2),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준거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또는 상당한 정도 감소시켜야 한다고 하였다(분석 단계3). 이러한 절차에 따라 연령과 계급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간의 관계에서 수용성, 사회정체성 그리고 통일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첫째, 독립변인인 권위주의와 매개변인인 수용성, 사회정체성, 통일인식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권위주의는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8, p < .01$). 즉, 권위주의가 높을수록 수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사회정체성($\beta = .022, n.s.$)과 통일인식($\beta = -.112, n.s.$)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정체성과 통일인식은 매개효과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인인 권위주의와 준거변인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beta = .264, p < .00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beta = .231, p < .001$)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beta = .205, p < .01$)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부정적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독립변인을 권위주의, 준거변인을 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으로

⁶⁰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1986), p. 1179.

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한 후, 심리적 변인 중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 수용성 변인을 추가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용성은 고정관념($\beta=-.540$, $p<.00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beta=-.520$, $p<.001$)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beta=-.388$,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위주의가 고정관념($\beta=.048$, n.s.),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beta=.023$, n.s.)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beta=.050$, n.s.)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치는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효과 검증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수용성은 권위주의와 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완전매개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Sobel(1982) 검증은 매개효과가 0보다 큰 지 여부를 Z검증을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 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b_1 \times b_2}{\sqrt{b_1^2 \times Se_2^2 + b_2^2 \times Se_1^2}}$$

이 때, b_1 은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그리고 b_2 는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비표준화된 계수를 말한다. Sobel 검증 결과 수용성은 권위주의와 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과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 간의 관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완전매개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수용성 변인을 통한 설명량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관념 23% 증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22%증가, 사회적 거리감 12%증가).

<표 6>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의 관계에서 수용성의 매개효과분석

예언변인	B	SE	β	R ²	t	F	준거변인
연령	-.005	.006	-.099	.075***	-.914	7.372***	고정관념
계급	-.018	.050	-.038		-.350		
권위주의	.239	.057	.264		4.168***		
연령	-.007	.005	-.126	.307***	-1.348	27.185***	고정관념
계급	.053	.044	.113		1.186		
권위주의	.044	.054	.048		.807		
수용성	-.021	.002	-.540		-8.900***		

*** $p<.001$.

<표 7>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과의 관계에서 수용성의 매개효과분석

예언변인	B	SE	β	R ²	t	F	준거변인
연령	.004	.008	.061	.048***	.559	4.94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계급	-.088	.063	-.152		-1.388		
권위주의	.259	.072	.231		3.595***		
연령	.002	.007	.035	.263***	.361	22.10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계급	-.004	.057	-.007		-.073		
권위주의	.026	.069	.023		.375		
수용성	-.025	.003	-.520		-8.320***		

*** $p < .001$.

<표 8>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에서 수용성의 매개효과분석

예언변인	B	SE	β	R ²	t	F	준거변인
연령	-.012	.017	-.078	.035***	-.712	3.839***	사회적 거리감
계급	.029	.140	.023		.210		
권위주의	.505	.159	.205		3.170**		
연령	-.015	.016	-.098	.153***	-.950	11.656***	사회적 거리감
계급	.167	.134	.131		1.250		
권위주의	.123	.163	.050		.755		
수용성	-.042	.007	-.388		-5.788***		

*** $p < .001$, ** $p < .01$.

<표 9>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의 관계에서 수용성의 매개효과분석

변수 간 경로	sobel test (Z값)
권위주의 → 수용성 → 고정관념	5.48***
권위주의 → 수용성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5.09***
권위주의 → 수용성 → 사회적 거리감	4.39***

*** $p < .001$.

V.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인의 심리적 변인들(수용성, 권위주의, 사회정체성, 통일인식) 중 수용성과 통일인식은 직업군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 장병들의 다문화장병에 대한 수용적 태도⁶¹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북한 및 통일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북한 및 북한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결과⁶²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통일을 원하는 열망이 높다는 연구결과⁶³를 지지해주었다. 이는 최근 다양한 언론매체나 학회에서 강조하는 남북한 민족공동체 형성이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얼마든지 군 조직문화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즉, 본 연구결과는 군 내 다문화수용성 증진 및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직업군인의 사회정체성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정체성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외한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집단동일시가 강한 사람들(즉, 사회정체성이나 집단자아존중이 높은 사람들)이 특히 집단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더욱 내집단 편애와 상대적 외집단 비하를 보인다는 연구결과⁶⁴와 관련 지워볼 수 있겠다. 즉,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대상이 한국 군인으로서 정체성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군인의 사회정체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 또 다른 해석은 한국인이라는 민족정체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외집단으로 지각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민족적 차원에서 내집단으로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추후연구로 남겨두는 바이다. 다음으로 직업군인의 사회정체성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접촉이 집단적 위협(이득 위협 혹은 정체성 위협)을 줄이고, 사회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에 있어 접촉의 긍정적 효과는 외집단을 접촉할 때의 불

⁶¹ 이정호, “군 인적자원 구성 다문화대비 정신교육 방향연구-다문화인식과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p. 54.

⁶² 전우영·조은경,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pp. 173~175.

⁶³ 정기신,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pp. 427~448.

⁶⁴ Crocker, J., Luhtanen, S. R.,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1990), pp. 60~67.

안을 줄인다는 관련 연구⁶⁵들과 맥락을 함께 한다. 즉, 군인의 사회정체성은 일반 남한주민과는 다른 특성이 있을 것이고 이들에게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언론매체의 방영, 다문화 및 통일교육 등은 오히려 “우리의식”이라는 동질성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보다 우호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군에 입대한 남부출신들이 인종 간 단합이 요구되는 군대의 규범을 쫓았을 때 흑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다는 선행연구를 볼 때,⁶⁶ 군대 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수용에 대한 규범적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직업군인의 사회정체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군의 사회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볼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이때 남북한 주민이 하나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재범주화(Re-categorization) 방법을 응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군대 내 다문화 통합을 위한 사전 교육들이 문화적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변화에만 초점을 둔다면 군대 내 다문화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추후에 군대 내 북한이탈주민 장병들이 함께 복무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 군대 내의 현실적 갈등에 대한 인식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보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나 VTR 자료, 역할연기 등과 같은 다양한 다문화 수용 및 통일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의 권위주의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이는 권위주의와 편견 간의 관계에서 제3의 매개변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직업군인의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간의 관계에서 수용성은 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에서 모두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권위주의 성격이 편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⁶⁷를 일부 지지해준다. 본 연구의 차이점은 직업군인의 권위주의는 수용성을 매개로 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부사관이라는 군인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특성이

⁶⁵ 김혜숙 외,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p. 80.

⁶⁶ Watson, (1950);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p. 502 재인용.

⁶⁷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p. 494 재인용.

높은 집단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⁶⁸가 북한이탈주민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적 특성이 강하고 수용성이 높은 집단(예: 대안 학교 교사)과 권위주의적 특성이 강한 집단(예: 보호담당관)을 비교하여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닌 개인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편견이 더 심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입장과는 다른 이론적 함의가 있겠다. 또한 일반적으로 편견이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고 내집단을 외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입장⁶⁹과 차이를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의 개입과정에서 군 조직이라는 “우리”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그들”로의 범주화가 고정관념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 되지는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직업군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견해나 태도와 달리 사회적 거리감과 같은 행동적 편견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남한주민의 경우, 접촉 시 긴장과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 제한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⁷⁰에 비추어볼 때, 직업군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변인임을 입증해주었다. 이를 통해 추후 군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실적 갈등을 감소하기 위한 편견해소 방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군인들의 북한이탈주민이 편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착하고,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군의 화합과 최상의 전투력을 기대한다면, 군인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군 다문화 대비 편견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해소 교육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다문화 군대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한 지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한 군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해소 교육은 대 국민화합 뿐 아니라, 군 제대 후 성숙한 다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장에 발판이 될 것이다. 셋째, 군내 인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군

⁶⁸ 양계민·정진경,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pp. 107~109.

⁶⁹ Taifel, H.,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3 (1982), pp. 1~39.

⁷⁰ 김현아·김규식, “북한이탈주민의 서비스 갭의 내적 요인으로서 장애인식과 태도: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상담학회지』, 제27권 1호 (2016), p. 127.

내 이질적 정치 집단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바, 군내 인적통합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휘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출신 군인의 배치 및 동료관계 촉진을 위해 군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일 후 군 통합 모델 수립을 통한 국방정책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장병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군인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국가관과 안보관, 군인정신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장병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통일 후 군 통합의 예비 실험장으로서의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일 후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군 통합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군인들 중 직업군인인 부사관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병사나 장교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병사나 장교를 포함하여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견에 대한 측정을 자기보고식 평가와 같은 명시적 측정을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거나, 반응시간을 이용한 암묵적 측정, 행위자의 행동관찰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다.

■ 접수: 4월 29일 ■ 심사: 5월 25일 ■ 채택: 6월 1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이선·황정미·이진영.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1), 2007.
- 김혜은. 『다문화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2012.
- 손기웅. 『통일독일의 군 통합 사례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양계민·정진경.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전미영. “통일이후 민족공동체 추진계획,” 『단일·다문화를 넘어선 공동체 모색: 민족공동체와 사회통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11.
- 차재호. “남북한 문화통합의 심리학적 고찰,” 『북한문화연구 1』.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
-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13.
- 한덕웅, 성한기, 강혜자, 이경성, 최훈석, 박근석, 김금미, 장은영.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5.

Adorno, T. W., Frenkel-Brunwic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1950)

Sears, D. O., Freedman, L., & Peplau, L. A., “Social psychology (5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5).

2. 논문

- 강동완.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징집 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1.
- 김금미·안상수. “남녀대학생의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문 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9권 3호, 2014.
- 김병조.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 분석-통일정책에 대한 한 제언.” 『통일과 평화』. 제1권 2호, 2009.
- 김현아·김규식. “북한이탈주민의 서비스 갭의 내적 요인으로서 장애인식과 태도: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상담학회지』. 제27권 1호, 2016.
-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2호, 2011.
- 김혜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4호, 2007.

- 박은숙.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박영주·이주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제24권, 통권 24호, 2013.
- 민경환.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4권 2호, 1989.
- 서영석·이정림·차주환.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1호, 2006.
- 손기웅, 통일한국의 군 통합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6권 1호, 1997.
- 신미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상호인식-한국사회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5권 2호, 2009
-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2호, 2009.
- _____.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과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4권 1호, 2010.
- 양계민·정진경.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권 특집호, 2005.
- 오주영·정해빈.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 『공익과 인권』. 통권 제13권, 2013.
- 이정호. “군 인적자원 구성 다문화대비 정신교육 방향연구-다문화인식과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임나영. “북한이탈주민 학생에 대한 초등교사의 태도 분석-사회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전우영·조은경.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1호, 2000.
- 정기선.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 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2권, 여름호, 1998.
- 정명희·이주희.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연구』. 제7권 2호, 2014.
- 정석원.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전우택·유시은·이연우.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근거 이론에 의한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 조정아·정진경.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 최선애. “다문화 군대를 대비한 민과 군의 준비방향에 관한 제언.” 『한국군사회복지학』. 제3권 1호, 2010.
- 최현주·이자영. “직업군인(부서관)의 소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제13권 6호, 2012.

- 한영석. “합병기업에서 지위, 사회정체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홍유진.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황운경.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대전광역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Altemeyer, B.,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San Diego: Academic Press, 1998.
-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1986.
- Bogardus, E. S.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1925.
- Branscombe, N. R., Schmitt, M. T., & Harvey, R. D., “Perceiving pervasive discrimination among African–Americans: Implications for group identificatio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1999.
- Crocker, J., & Major, B.,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Vol. 96, 1989.
- De Figueiredo, R. J. P., & Elkins, Z., “Are patriots bigots? An inquiry into the vices of in–group prid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7, No 1, 2003.
- Elms, A. C., & Milgram, 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obedience and defiance toward authoritative command.”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ersonality*, Vol. 2, 1966.
- Kaiser, C. R., & Miller, C. T., “Stop complaining! The social costs of making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7, 2001.
- Major, B., & O'Brien, L. T.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6, (2005) p. 394; Steele, Spencer & Aronson, 2002.
- Taifel, H.,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3, 1982.

3. 기타자료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 통일교육원 교육자료. 2003.
- Coenders, M., Lunnens, M., & Scheepers, P., 『Majo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report for the European Monitoring Venter on Racism and xenophobia』. 2003. <http://eumc.int>.

Abstract

The Effect of Military’s Psychological Factors on Stereotypical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Refugee

Ja-Young Lee & Hyun-Ah Kim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sychological variables, namely receptivity, authoritarianism, social identity, and perception toward unification, on stereotypical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which are categorized into cognitive(stereotypes), emotional(feelings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and behavioral(social distance) aspects. For this purpose, 243 soldiers were asked to complete the surve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ceptivity and perception toward unification showed influence on soldiers’ cognitive stereotypical attitudes, affected emotional and behavioral stereotypical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refugee. Social identity showed negative effects on emotional stereotypical attitudes and positive effects on behavioral stereotypical attitudes(social distance). Second, receptivity was found to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ism and cognitive/emotional stereotypes and social distance. Lastly, the findings were discussed with i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 Military’s Stereotypical Attitudes, Receptivity, Authoritarianism, Social Identity, Perception toward Unification

